

주격 인칭대명사의 생략과 번역 - 『프라자 호텔』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

김경희
(한양대)

I. 서론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들과 유사한 보편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언어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번역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언어 고유의 특성은 곧 번역 작업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원작 언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도착언어로 매끈하게 번역하는 일이 번역자의 과제인데 두 언어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번역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을 들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7)에 따르면 한국어 특징의 하나로 “듣는(읽는) 사람이 주어가 무엇인지 또는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흔히 생략된다.”(p.38)고 설명한다. 김일웅(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서승희, 석주희, 송신애, 최지수, 홍승

빈(2019) 재인용)은 “한국어의 대명사 생략은 되풀이될 때에만 가능하며 담화에서는 대명사의 생략이 더 무표적”(p.37)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생략의 이유를 김성훈(1994)은 말하는 이가 되풀이된 것을 피하고 간결하게 말하려는 ‘언어 경제적인 이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의 ‘내용적인 이유’, 시나 소설에서의 작가가 의도하는 ‘문체적 이유’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너 학교에 가니?”

“응. (나는) 학교에 가”

이 경우, 질문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므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말하여진다. 다음의 경우에도 두 번째 문장에서 읽는 사람이 주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주어인 ‘나는’의 생략이 자연스럽다.

나는 인파를 헤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땀범벅이 된 몸을 어서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프라자 호텔, 231쪽)

직접목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예문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의 대답은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때, 한국어로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당신은 순영이를 만났나요?”

“네. (나는) (순영이를) 만났어요.”

간접목적어의 경우도 김성훈(1994)의 ‘언어 경제적인 이유’로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운서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몇초의 시간이 (나에게)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235쪽)

이처럼 한국어에서의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은 흔히 발생하고 심지어는 더

자연스러운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프랑스어에서의 주어 생략은 영어나 독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려면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방식의 형태적 등가의 번역은 불가능하고 외현적 주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여야 하며 생략된 목적어도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너 학교에 가니?”

“응. (나는) 학교에 가”

- Tu vas à l'école ?

- Oui, **je** vais à l'école.

나는 인파를 헤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땀범벅이 된 몸을 어서 씻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프라자 호텔, 231쪽)

J'en ai profité pour me rapprocher de la station de métro en traversant la foule tant bien que mal. **Je** n'avais qu'une envie, prendre une bonne douche. (2, p.31)¹⁾

“당신은 순영이를 만났나요?”

“네. (나는) (순영이를) 만났어요.”

- Vous avez rencontré Soonyeong ?

- Oui, **je l'**ai rencontrée.

윤서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몇초의 시간이 (나에게)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235쪽)

Ces quelques secondes d'attente **m'**avaient paru interminables. (1, p.80)

Les quelques secondes au bout desquelles sa réponse est venue **m'**ont paru une éternité. (2, p.36)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자들은 한국어에서 생

1) 『프라자 호텔』의 두 개의 프랑스어 번역본 가운데 편역상 *Koreana*에 실린 *Le Plaza Hotel*은 1, *Nouvelles de Corée*에 실린 *Hôtel Plaza*는 2로 표기하기로 한다.

락된 주어나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해서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에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 그 가운데 특히 주격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을 번역자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II. 기존연구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 수를 영어로 번역된 작품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프랑스어 문학번역자들이 주로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었던 것에 비해 점차 전문 문학번역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프랑스어 번역 작품은 증가 추세이지만 프랑스어 번역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박정섭(2010)의 주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번역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생략된 주어의 번역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어에서의 주어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박정섭(2010)은 구어체에서 한국어 문장의 주어를 정보 구조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의 주어 생략이 번역에서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아마도 한국인 최초로 영국의 유명 문학상인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데버러 스미스가 번역한 *The Vegetarian*에 대한 연구들에서일 것이다. 조재룡(2017)은 이 영역본에 나타난 다양한 오역들을 나열하면서 ‘주어 생략’을 잘못 이해해서 야기된 오역들을 제시하고 프랑스어 번역본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에서, 인용 부호 안에 나오는 두 개의 문장에는 서로 다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문장의 내용으로 보나, 뒤따라 나오는 문장으로 보나, 첫 번째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장인’이고 두 번째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딸과 사위’다.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 (43쪽)

그러나 영역본의 번역은 두 번째 문장은 원문과 마찬가지로 그 주어를 생략해서 번역함으로써 원문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딸과 사위’로 번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역을 하였다.

“Now **you**’ve forgotten all your worries,” my father-in-law pronounced, taking up his spoon and chopsticks. “Completely seized the moment!” (p.41)

이 오역에 대해 조재룡은 ““걱정을 다 잊어버”린 것은 ‘장인’이다. 번역은 자주 주어를 잃고 해맨다. 번역이 자주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 자주 함정에 빠지는 지점은 어쩌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그 설명을 게을리해온, 한국어 고유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유달리 도드라지는 주어 생략의 함정을 번역가는 피해가지 못한다.”(p.9)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본은 자연스러운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 Dorénavant, **je** ne me ferai plus de souci pour vous. Voilà bien installés à présent, a remarqué mon beau-père en levant sa cuillère. (p.44)

『채식주의자』의 영역본은 한국어 원어민자가 아닌 외국인 테버러 스미스의 단독 번역의 결과인데 반해 프랑스어 번역본은 한국어 원어민자와 프랑스인 번역자의 공동 번역의 결과로, 이 사실이 번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식 외 7인(2019)은 한국어의 특징인 주어 생략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번역 후에도 여전히 생략되는지 혹은 생성되는지)”를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의 5개 언어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5개 언어의 주격 인칭대명사의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프라자 호텔』의 각 언어별 번역본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는데, 주어 생성 비율은 “영어(76.0%), 독일어(64.3%), 러시아어(56.1%), 스페인어(1.4%), 일본어(0.5%)” 순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분석 대상 작품으로 김미월의 『프라자 호텔』을 선택하였다. 선택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이 소설은 2010년 ‘젊은 작가상’과 2011년 ‘신동엽창작상’을 수상한,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인 김미월의 작품이고, 주어의 생략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1인칭 소설이어서 분석의 대상 작품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로 김한식 외 7인(2019)이 이 작품에서의 생략된 주어의 번역 양상을 5개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이 연구에 프랑스어 번역 작품에 대한 분석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가 이 연구와 같은 목적, 즉 5개의 언어로 번역된 작품에서의 생략된 주어의 번역 양상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의 비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이 작품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본이 2개가 존재하는데, 비록 두 번역본 모두 한국어 원어인 번역자들과의 공동 번역이긴 하지만, 두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연구는 김한식 외 7인(2019)의 공동 연구와는 달리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프라자 호텔』은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격자 구조를 가진 소설이다. 해마다 여름휴가를 호텔에서 보내는 삼십대 중반의 부부가 이번 여름휴가를 서울의 중심부, 시청 앞 ‘프라자 호텔’에서 보내기로 결정하는 장면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공인 ‘나’가 대학에 입학하여 ‘윤서’를 만나서 좋아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사회 운동에 적극적인 윤서를, 아는 학생회 형의 권유로 마지못해 따라간 시위 현장에서 만난 주인공은 그녀를 짝사랑하게 된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윤서가 가고 싶다는 프라자 호텔을 몰래 예약했지만, 약속 당일 윤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칠 개월 동안 갖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산 하룻밤은 그렇

게 지나갔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가 믿을까, 그때의 일을 기억이나 할까, 내가 바로 그때의 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그때의 우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현재의 ‘아내’와 과거 이야기 속의 ‘윤서’가 같은 인물임을 밝힌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간 이야기하지 않았던, 호텔을 예약했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는다.

우리는 『프라자 호텔』의 176개의 문장에서 주격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김한식 외 7인(2019)의 연구에서 “원문의 총 543문장 중 221개 문장에서 인칭대명사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p.39)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구에서 다룬 221개 문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절에서의 주어 생략만 선택한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된다.²⁾ 예를 들면 다음 예문들에서와 같이 종속절이나 관형절에 나오는 주어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았다.

(윤서는 특하면 수업에 빠졌다.) 찾아보면 과방이나 학교 앞 술집에 죽치고 앉아 있기 일췌였다. (224쪽)

어디 괜찮은 휴양지의 리조트도 아니고,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하며 가로지르는 도심 한복판의 호텔에 가자니. (218쪽)

첫 번째 예문에서 종속절의 ‘찾아보다’ 동사의 주어인 ‘나’ 또는 ‘우리’가 생략되어 있고, 주절의 ‘앉아있다’의 주어인 ‘윤서, 그녀’도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녀’의 생략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예문에서도 관형절의 동사인 ‘가로지르다’의 주어인 ‘나 또는 우리’가 생략되어 있고, 주절의 동사인 ‘가자고 하다’의 주어인 ‘아내인 ’그녀’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경우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³⁾

2) 본 연구가 김한식 외 7인(2019)의 연구와 달리 정량적 연구가 아니라 정성적 연구이고, 단지 전반적인 번역 양상을 비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본 연구가 ‘주격 인칭대명사의 생략’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생략된 주격 인칭대명사의 번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인칭별 생략 양상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프라자 호텔』의 주격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176개의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프랑스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생략된 주어의 번역 양상

『프라자 호텔』에서 찾아 본 176개의, 주격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문장 가운데, *Le Plaza Hotel*(번역1)에서는 80.1%에 달하는 141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생성되었으며, *Hôtel Plaza*(번역2)에서는 77.3%에 해당하는 136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생성되었다. 이 결과를 김한식 외 7인(2019)의 연구에서 프랑스어와 같이 주어의 생략이 일반적이지 않은 영어와 독일어의 번역본과 비교해 보면, 영어 번역본의 경우 76%의 주어 생성률, 독일어 번역본의 경우 64.3%의 주어 생성률로 프랑스어 번역본의 경우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두 번역본 모두 주어를 생성해서 번역하는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생략된 주격 인칭대명사가 프랑스어 번역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생략된 주어가 어떤 형태로 생성되는지, 생성되지 않고 번역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처럼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 야기되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주어 생성

주어의 생략은 모든 인칭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 김성훈(1994)이 주장하는 “말하는 이가 되풀이된 것을 피하고 간결하게 말하려는 ‘언어 경제적인 이유’”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략된 주어가 번역본에서는 다시 주어의 형태로 생성되어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언어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생략된 주어가 프랑스어 번역본에서는 주어가 삽입되어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1.1. 능동태 문장의 주어 생성

원문의 능동태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번역본에서 생성되어 번역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칭 소설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한국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예문(1)의 프랑스어 번역자들은 주어들을 넣어서 번역하였다.

(1) [ST] (세상에 그렇게 비싼 옷이 있다니. 그런 옷을 사입는 인간이 있고 그걸 또 알아보는 인간이 있다니.) 기가 죽었다기보다 기가 막혔다. (222쪽)

[TT] **Je** n'étais pas tant découragé qu'abasourdi. (1, p.73)

Ce n'est pas que **j'**étais jaloux, mais plutôt choqué. (2, p.14)

예문(2)에서와 같이 대화문에서 2인칭 청자인 주어들을 생략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다.

(2) [ST]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호텔비라 그랬었잖아.” (219쪽)

[TT] - **Tu** affirmais que c'était le pire des gaspillages. (1, p.72)

- **Tu** disais que payer une chambre d'hôtel, c'était jeter l'argent par la fenêtre. (2, p.11)

위의 예문들에서의 주어 생략과 달리 예문(3)에서 생략된 주어는 여러 가지로 가정할 수 있다. 앞 문장에서 주인공인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만 잠시 세워놓는 건데 돈을 내라니 도둑놈이 따로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다.”)과 대조하여 예문(3)은 일반적인 사실에 속해서, 생략된 주어인 ‘나’를 포함한 ‘우리’, 더 나아가 독자들도 포함해서 ‘당신들’로 볼 수 있는데, 번역2는 2인칭 복수 주어인 ‘vous’가 생략되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번역하였고, 번역1은 문장의 구조를 변형하여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번역을 하였다.

(3) [ST] 술을 마시면 술이 뱃속에 남고 책을 읽으면 책이 머릿속에 남는다. (220쪽)⁴⁾

[TT] Une fois absorbée, la boisson restait dans le ventre comme le livre lu, dans la tête. (1, p.72)

Quand **vous** buvez, l'alcool vous reste dans le ventre ; quand vous lisez un bouquin, l'histoire vous reste dans la tête. (2, p.12)

다음 예문(4)에서도 앞 문장에 직접목적어로 나오는 3인칭 복수 명사 ‘콩나물’이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서 생략된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지만 프랑스어로는 주어를 다시 회복하여 번역하였다.

(4) [ST] “(애들아, 콩나물 먹지마.) 쉬었어.” (223쪽)

[TT] - (Hé ! les gars, faut pas manger les pousses de soja !) **Elles** sont pourries ! (1, pp.73-74)

- (Eh les gars, mangez pas les pousses de soja,) **elles** sont aigres. (2, p.17)

1.2. 수동태 문장의 주어 생성

수동태 구문은 능동태 구문에서의 목적어는 주어가 되고 주어는 동작주 보어가 된다. 한국어 수동태 구문에서 이 동작주 보어의 생략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경우 프랑스어 번역자들은 자연스러운 능동태 문장으로 번역하면서 생략된 동작주 보어를 주어의 자리에 삽입하여 번역하였다. 아래 예문(5)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꾼다면 ‘광포한 빗줄기에 가려 (나는) 앞을 잘 못 보았다.’가 될 수 있는데, 번역자들은 생략된 주어를 살리면서 능동태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5) [ST] 광포한 빗줄기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237쪽)

[TT] Il pleuvait tant que **je** ne voyais presque rien. (1, p.81)

4) 이 예문은 주절에서의 주어 생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료체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J'avais du mal à voir devant moi à cause des tombes d'eau.
(2, p.40)

예문(6)에서도 ‘보다’ 동사의 주어인 ‘나’가 수동태 구문이 되면서 생략되어 있는데, 두 번역본의 번역자들은 모두 능동태 문장(‘그녀의 어깨 너머로 (나는)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길게 뻗은 태평로를 건너다 보았다.’)으로 번역하면서 주어를 생성하였다.

(6) [ST] 그녀의 어깨 너머로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길게 뻗은 태평로가 건너다 보았다. (230쪽)

[TT] Par-dessus ses épaules, **je** voyais s'étirer la rue Taepyeongno entre l'Hô tel de Ville et la porte de Gwanghwamun. (1, p.78)
Par-dessus son épaule, **je** voyais l'avenue Taeyong s'étirer de la mairie jusqu'à Gwanghwamun. (2, p.28)

프랑스어에서는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거나 대명동사의 수동적 용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예문(7)이 여기에 속한다. 동작주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번역1은 대명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주어를 생성하지 않았고 번역2는 주어를 생성하여 능동문으로 번역하였다.

(7) [ST] 프라자 호텔의 측면이 보였다. (234쪽)

[TT] Le Plaza Hotel **se profilait** à l'horizon. (1, p.79)
À distance, **on** apercevait l'angle de l'hôtel Plaza. (2, p.34)

2. 격변화

생략된 주어가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생성되는 경우, 대부분 주어로 생성되어 번역되었지만 격변화를 하여서 주어 대신,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예문(8)에서, 주어를 생성하여 번역한 번역2와는 달리 번역1에서는 동사 ‘모르다’의 주어인 ‘나’가 간접목적어를 격변화 하여 훨씬 문어적

으로 번역되었다.

- (8) [ST] (결혼하고 나서 내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여자 화장품의 가짓수였다.) 그게 그토록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228쪽)

[TT] Jamais il ne **me** serait venu à l'idée qu'il en existait autant de sortes. (1, p.76)

Je n'aurais jamais imaginé pareille diversité ni tant de catégories. (2, p.25)

예문(9)의 경우는 번역1은 ‘만나다’ 동사의 주어인 ‘너’를 생성하여 번역한 한편 번역2는 생략된 주격 인칭대명사를 간접목적어로 격변화 시켜 번역함으로써 구어적 표현에 어울리는 번역이 되었다.

- (9) [ST] “별일없으면..... 그날 나랑 만날래?” (235쪽)

[TT] - Si tu n'as rien de prévu... est-ce que **tu** voudrais bien le passer avec moi ? (1, p.80)

- Si tu n'as rien de prévu, ça **te** dirait qu'on le passe ensemble ? (2, p.36)

생략된 주어와 직접목적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예문(10)은 종속절의 주어 ‘나’와, 주절의 주어 ‘그녀’가 모두 생략되어 있는 경우인데, 두 번역본 모두에서 주절의 주어인 ‘그녀’가 직접목적어의 형태로 생성되었다.

- (10) [ST] 찾아보면 과방이나 학교 앞 술집에 죽치고 앉아 있기 일쑤였다. (224쪽)

[TT] Lorsque **je** me mettais à sa recherche, je **la** trouvais invariablement dans la salle de réunion du département quand elle ne traînait pas dans l'un des bars situés en face de l'université. (1, p.74)

Elle avait l'habitude de traîner dans la salle des étudiants, ou

de rester planquée dans un bistrot en face de l'université. En général, c'est là que **je la** trouvais. (2, p.18)

생략된 주어가 '소유형용사'의 형태로 삽입되어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원문에서 동사 '돌리다'의 주어인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생략되었는데 예문(11)의 번역1에서는 '눈'을 소유형용사와 함께 씌으로써 생략된 주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

(11) [ST]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221쪽)

[TT] **Mes** yeux se sont tournés vers l'écran. (1, p.73)

J'ai baissé les yeux sur l'écran. (2, p.13)

예문(12)의 경우, 주절에서의 주어 생략은 아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절인 '학생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서 생략된 주어 '우리'를 번역2는 소유대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주절의 동사 '그렇다'의 주어인 '그녀'는 주어를 생성하여 번역하였다. 번역1의 경우는 상황절에서는 주어를 생성하였고, 주절에서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번역하였다.

(12) [ST] 학생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랬듯이 (235쪽)

[TT] Exactly comme au restaurant universitaire, quand **nous** nous étions rencontrés. (1, p.80)

... le même que celui qu'elle m'avait adressé lors de **notre** première rencontre au resto U. (2, p.25)

3. 주어 생략

『프라자 호텔』에 나오는 176개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 가운데 번역1은 19.9%에 달하는 35개의 문장, 번역2는 22.7%에 달하는 40개 문장을, 문장을 결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꿈으로써 원문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아래 예문(13)은 원작의 문장이 매우 간결한 문장으로, 두 번역 모두 명사

구 문장으로 변형하여 번역함으로써 원 문장이 갖는 간결성을 살릴 수 있었다.

(13) [ST] (그녀는 얼굴이 조막만했다. 피부는 희고 눈동자는 새카맣고 입술은 붉었다.) 한마디로 백설공주 같았다. (223쪽)

[TT] Une Blanche Neige, ni plus ni moins. (1, p.74)
En somme, Blanche-Neige. (2, p.17)

예문(14)의 경우는 ‘~하는 것이 보인다’로 된 수동태 문장을 생략된 동작 주 보어인 ‘나’를 주어로 생성해서 번역하는 것이 문장을 더 무겁게 한다고 판단한 번역자들이 ‘나에게 보인다’를 생략하여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14) [ST] 승객들이 다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는 것이 보였다. (230쪽)

[TT] Les passagers somnolaient, la tête appuyée à la fenêtre. (1; p.78)
Les passagers somnolaient, la tête contre les vitres. (2, p.29)

예문(15)의 경우도 원작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간결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두 번역본의 번역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번역1은 원문의 각 문장에 주어를 생성해서 번역하였고, 번역2는 주어를 생략하면서 그러한 생략이 어색하지 않도록 각 문장을 연결해서 나열하였다. 원작의 문체를 고려한다면, 번역2가 더 원작의 간결함을 살린 번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ST] (그도 그럴 것이, 호텔에서 보낸 휴가들이란 항상 뻘했다.) 체크인을 한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다. 스카이라운지 바에서 술을 마신다. 방으로 돌아와 섹스를 하고 잔다. (그게 다였다.) (227쪽)

[TT] (Rien d'étonnant à cela ! Les vacances à l'hôtel se déroulaient sans imprévus, car selon un même rituel.) **On** se présentait à sa réception. **On** mangeait à son restaurant. **On** prenait un verre au bar de son dernier étage. **On** regagnait l'une de ses

chambres et, après une étreinte, on s’y endormait. (Voilà tout.)
(1, p.76)

(Finalement, nos vacances à l’hôtel, c’était toujours la même chose) : faire le *check-in*, dîner au restaurant sur place, boire un verre au Sky Lounge, retourner dans la chambre, faire l’amour et dormir. (Voilà tout.) (2, p.24)

예문(16)에서도 앞의 문맥으로 보아 원문의 생략된 주어인 ‘프라자 호텔’을 생성하지 않으려고 번역2는 문장을 변형하여, 독립적인 두 문장을 쉼표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번역하였다. 번역1은 첫 번째 주어는 생성을 한 반면 번역2는 생략된 두 개의 주어를 모두 생성하지 않았다.

(16) [ST] “(스무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어. 친부모를 만나러 온 거지.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 묵어.)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상징적이잖아. 시청 바로 앞이기도 하고 포인트제로도 가깝고.” (234쪽)

[TT] - C’est tout un symbole, car il est situé en plein centre de Séoul, juste en face de l’Hôtel de Ville et près du Kilomètre Zéro. (1, p.79)

- Là, en plein cœur de Séoul, un lieu symbolique ; juste en face de la mairie, quasi au point zéro. (2, p.35)

V. 생략된 주어 번역에서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의 주어 생략이 대부분 앞뒤 문맥의 도움으로 추측해 낼 수 있는 경우에, 김성훈(1994)이 제시하는 ‘언어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생략된 주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처럼 번역자들에게, 특히 외국인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생략된 주어 찾기’의 부담을 제공한다. 우리의 분석 대상인 『프라자 호텔』의 두 프랑스어 번역본도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예문(17)에서 생략된 주어는 ‘도어맨’으로 볼 수도 있

고, 일반적인 의미로 ‘누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역본이 생성한 주어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7) [ST] (흠뻑 젖은 소매와 바짓단에서 물이 툭툭 떨어졌다. 눈치 빠른 도어맨이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웃음을 지었다.

“콘니찌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기 귀찮아서 나도 수건을 돌려주며 응수했다.

“아리가또오 고자이마스.”)

설마 한국인 남성이, 한여름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238쪽)

[TT] À cette époque de l'année, il ne devait pas se douter qu'un Coréen était descendu dans cet hôtel du centre de Séoul pour y passer ses vacances. (1, p.81)

Personne n'imaginant qu'un Coréen puisse passer ses vacances d'été dans un hôtel en plein coeur de Séoul. (2, p.40)

예문(18)에서는 번역2에서처럼 ‘우쭐해지다’의 생략된 주어 ‘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번역1은 앞 문장의 ‘우리 양복쟁이들’을 이 예문에서의 생략된 주어로 파악하였다.

(18) [ST] (결국 우리 양복쟁이들은 아무 수업이나 닥치는 대로 신청해서 간신히 19학점을 채웠다.) 신입생 수가 30명이고 수업 정원도 30명인데 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모자라 수강이 불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철학입문’이라든가 ‘인문학개론’ 등 뭔가 지적으로 느껴지는 과목명들을 보고 있자니 스스로 지성인이 된 것 같아 금세 우쭐해졌다. (222-223쪽)

[TT] Puisque nous étions au total trente nouvelles recrues et que le nombre d'étudiants était limité à trente par cours, je ne saisisais pas bien la raison pour laquelle il fallait tant se presser de

crainte de se retrouver en trop, mais, à la lecture d'impressionnants intitulés tels qu'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ou "Initiation aux sciences humaines", **nous** nous voyions déjà devenir de vrais intellectuels. (1, p.73)

Nous étions trente nouveaux et il y avait trente places pour chaque cours. On n'avait pas de raison de craindre d'être refusés. Alors, pourquoi les autres s'étaient-ils tant pressés ? Du fait d'avoir choisi des matières à l'intitulés ronflant tels que "Initiation à la philosophie", "Introduction aux sciences humaines", **je** me suis senti tout fier, comme si j'étais déjà devenu un intellectuel. (2, p.15-16)

이상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모호하여 동일 원작에 대해 서로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때로는 생략된 주어를 잘못 생성하여 원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문(19)에서 생략된 주어는 '나'인데 번역1은 '너'로 번역하여 원문과 다른 번역이 되었다.

(19) [ST] ("못 찾겠어.) 프린트에 성냥 좀 갖다달라고 할까?" (230쪽)

[TT] - Et si **tu** demandais à la réception de faire monter des allumettes ? (1, p.78)

- **Je** demande à la réception d'apporter des allumettes ? (2, p.28)

예문(20)의 경우도 원문에서 생략된 주어를 잘못 생성함으로써 원문과 의미가 다른 번역이 되었다.

(20) [ST]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믿을까. 그때의 일을 기억이나 할까.) 내가 바로 그때의 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그때의 우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241쪽)

[TT] (Plus de dix ans après, je me demandais encore si elle croirait tout cela. Mais s'en souviendrait-elle seulement ?) Comment

serais-je en mesure de prouver que j'étais ce garçon d'alors, que nous étions les mêmes ? (1, p.83)

(Maintenant que plus d'une dizaine d'années sont passées, est-ce qu'elle me croirait si je lui disais la vérité ? Se souvient-elle seulement de ce rendez-vous manqué ?) Se souvient-elle de ce que j'étais, de ce que nous étions à cette époque ? (2, p.45)

위 원문에서 생략된 주어를 생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믿을까. (그녀는) 그때의 일을 기억이나 할까. 내가 바로 그때의 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그때의 우리라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241쪽)

그러나 번역2는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의 의미를 '그녀가 기억할까?'의 의미로 번역하여 다른 의미의 번역이 된 것이다.

VI. 결론

한국어에서의 주어 생략 현상은 '언어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스러운 반면 프랑스어에서의 주어 생략은 명령문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 문학작품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번역자들은 '생략된 주어 찾기'와 '그것을 어떻게 번역 속에 담아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일반적으로 앞뒤 문맥의 도움으로 주어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간혹 외국인 번역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략된 주어를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미월의 『프라자 호텔』의 두 가지 프랑스어 번역본을 살펴보았다. 1인칭

소설인 원작의 176개 문장에서 주격 인칭대명사가 생략되었는데, *Le Plaza Hotel*에서는 80.1%에 달하는 141개의 문장에서, *Hôtel Plaza*에서는 77.3%에 해당하는 136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김한식 외 7인(2019)의 『프라자 호텔』의 영어와 독일어 번역본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주어를 생성해서 번역하는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어 번역자들은 생략된 주어를 대부분 주어로 생성하거나 격을 변화시켜 목적어 또는 소유형용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로 번역하였다. 두 번역본 모두, 주어가 생략된 문장의 약 20%를 문장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문장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원문에서와 같이 주어가 나오지 않도록 번역하였다.

생략된 주어를 주어로 생성하거나 문장 구조를 변형하여 번역한 경우, 주어가 여러 가지로 유추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일부 문장은 두 번역본이 서로 다른 주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문장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잘못 이해하여 원문과 다른 의미의 번역이 된 경우도 있었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7),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희, (2019), 「문학번역에서의 ‘삭제’의 문제」, 『통번역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5-32.
- 김성훈, (1994), 「텍스트에서의 생략현상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권, 387-420.
- 김순길, (2012), 「텍스트에서의 인칭대명사 생략현상 및 요인」, 『중국조선어 문』 178, 25-30
- 김일웅, (1984), 「대명사의 생략 현상」, 『언어연구』 7, 1-20
- 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서승희, 석주희, 송신애, 최지수, 홍승빈, (2019), 「인칭 대명사 생략 문장의 A-B번역 양상: 소설 <프라자호텔>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31-54.
- 박정섭, (2010), 「정보 구조와 한불 번역에서 주어의 처리 문제」, 『프랑스어문 교육』 제33집, 331-356.
- 조재룡, (2017),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90(1), 1-21.
- Mounin, Georges, (1963),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Gallimard.
- Seleskovitch, Danica, (1976), Traduire, de l'expérience au concept,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24, Didier.
- <분석 대상 텍스트>
- 김미월, (2011), 『프라자 호텔』, 창비.
-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창비.
-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Portobello.
- Han, Kang, (2016), *La végétarienne*, Le Livre de Poche.
- Kim, Mi-wol, (2016), Le Plaza Hotel, *Koreana* Vol.17 No3, The Korea Foundation.
(번역1)
- Kim, Mi-wol, (2016), *Hôtel Plaza*, Magellan & Cie. (번역2)

[Abstract]

Translations of deleted subjects in Korean
- Focusing on French Translations of *Plaza Hotel* -

Kim, Kyunghye
(Hanyang University)

Subject deletion is a common phenomenon in Korean whereas it is not allowed in French. This makes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into French burdened with finding what the deleted subject is and how it should be expressed in translation.

We examined two translated versions of *Plaza Hotel* by Mi-wol Kim in order to see how they dealt with the deleted subjects in the original work. Of the 176 deleted subjects in the first-person original version, *Le Plaza Hotel* translated 141 subjects(80.1%) overtly, whereas *Hôtel Plaza* translated 136 subjects(77.3%) with overt subjects.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e English and German translations of *Plaza Hotel*/by Han-sik Kim et al.(2019), we found a slight difference, but they all used a common strategy to recover the deleted subjects and translate them.

The French translators used overt subjects most often, or changed them into the objective case or a noun phrase with a possessive adjective. Both translations changed the sentence structure of 20% of the cases, or combined the sentences so that there would not be deleted subjects as in the original version.

>> Key Words

문학 번역(literary translation), 『프라자 호텔』(*Plaza Hotel*), 주어 생략(subject deletion), 주어 생성(overt subject), 오역(mistranslation)

김경희

한양대 프랑스학과 교수

kimkh@hanya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 2020년 12월 07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1일